

한라산 등반객 심정지 ‘겨울철’ 집중

최근 4년간 14건... 절반이 11~12월

추운 날씨로 혈압 올라 위험

한라산을 오르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심장마비 등의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특히 한라산 등반객의 심정지 사고는 겨울철(11~12월)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(2017년 2월~2020년 3월) 한라산 등반 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4건이다. 월별로 보면

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 절반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또 지난해 한라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5건 중 3건이 심장마비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겨울철 한라산 탐방 시 추운 날씨로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.

이에 도 소방안전본부는 ‘2020년 민·관 합동 한라산 인명구조훈련’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이번 인명구조훈련은 지난달부터

이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한라산 등산로와 비등산로 일대에서 진행된다.

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속한 구조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헬기 ‘한라매’와 인명구조견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.

한편 도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한라산 등반 시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▲만성 기저질환자(심혈관·호흡기 질환·고혈압 등) 등반 자제 ▲등산 전·후 전신 스트레칭 ▲전날 음주 후 산행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.

이서희 기자 staysf@jejupress.co.kr

17.0 X 9.4 cm



“5G 영상의료지도로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높인다”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(본부장 정병도)는 5G 영상의료지도 기술을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. 사진은 중증 응급환자 이송 특별구급대원과 제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지도의사 간 고품질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다. 영상통화로 제세동기에서 감지하는 혈압, 맥박, 심전도, 산소포화도 등 생체정보가 자동으로 지도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. 5G 영상의료지도 서비스는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·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·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등 3개 특별구급대에서 우선적으로 운영된다. (사진 제공=제주도소방안전본부)

13.9 X 11.5 cm